

금주의 기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꺾임받지 않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금주의 말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2절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11월 9일 (토) 제 1754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199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아틀란틱, 데렉 톰슨, 미국교회 출석 감소 시작되게 한 3가지 사건 설명

1960년대부터 1990년 초반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미국 교회 성장세는 1990년대 후반부터 갑자기 하락세로 접어들게 된다. 바로 교회나 성당 등 종교적으로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현저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실제로 대면하고 있는 “년스(Religious Nones)”들이다. 결국 2019년 바나리서치 설문 조사 결과 현재 미국인 중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64%일 정도로, 1990년 후반부터 시작된 교회 성장 하락세는 가파른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도대체 1990년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디 아틀란틱”의 데렉 톰슨(Derek Thompson)은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해 30년 전 과연 어떠한 일들이 크리스천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했는지를 분명하게 짚어준다(Three Decades Ago, America Lost Its Religion. Why?, “Not religious” has become a specific American identity-one that distinguishes secular, liberal whites from the conservative, evangelical right).



준비된 리더가 그룹 성장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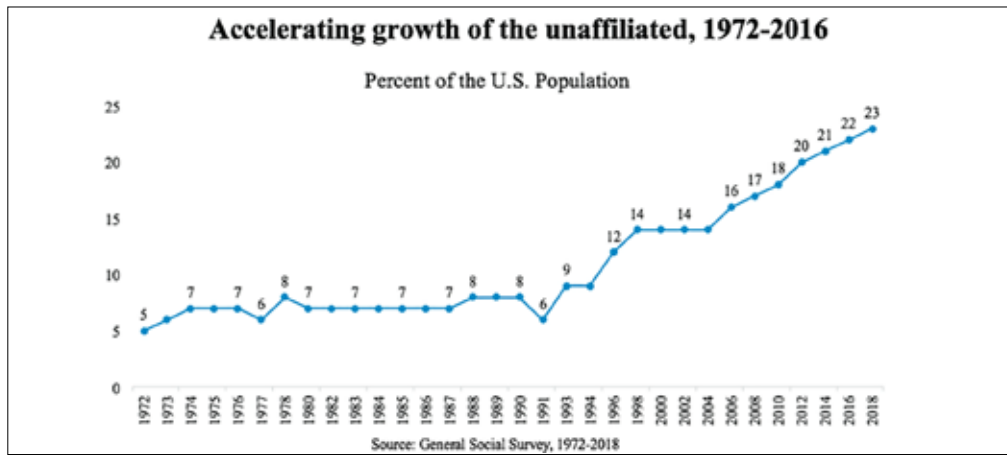
리더십개발, 데이브 얼리 목사의 성공하는 소그룹 리더십 관 '준비' 소개

데이브 얼리(Dave Earley, 오하이오 제일침례교회 담임, 리버티대학교 목회리더십 조교수) 목사는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12명의 교인과 시작한 제일침례교회를 현재 2,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켰다. 100개 이상의 소그룹 모임을 갖게 하고, 교회 성장 세미나로 수천 명의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가운데 소그룹 리더가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8가지로 밝히고 있다. 8가지 노하우 중 “철저한 준비”만이 소그룹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리더 자신, 분위기, 모임일정 등 준비

“준비는 내 강점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소그룹 리더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평소 소그룹 모임을 할 때 ‘그때그때 직감’을 따라서 진행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데이브 얼리 목사는 성공하는 소그룹 리더는 그룹 모임을 준비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한다. 리더십의 시작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소그룹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알기 위해 매주 준비를 해야 한다. 매주 준비를 함으로써 그 소그룹이 향상되며, 멤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과, 크리스천 스미스(Christian Smith)는 미국인들이 기존 종교 틀 안에서 멀어지게 된 역사적 사건들로, 1)공화당과 기독교 우익의 연합 2)냉전시대의 종말 3)9.11테러 사건을 꼽는다. 먼저 2)와 3)을 설명하고, 1)정치와 종교의 결탁을 살펴보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의 제국 구조원이 견제하는 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미국인들의 신앙 고백은 유효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세계는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져 대량 살상 무기를 서로에게 겨누는 채 지구촌 곳곳에서 기아와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 군비경쟁에 열을 올렸다. 이른바 냉전(Cold War)의 시대였다. 한반도의 분단을 포함해 인류를 양분했던 비극적인 대립 체제로서의 냉전은 이후 상대 진영을 초토화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 경쟁, 그리고 자칫 지금까지의 전쟁과는 양상이 다른 핵전쟁의 위기까지 감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동서 냉전은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의 붕괴와 구조원의 몰락이 대결과 분열의 시대를 끝냄으로써 종말을 고하게 됐다. 절대 악의 종말과 동서 냉전 종식으로 경건했던 미국인들은 나사가 풀린 채로 살

아가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그러나 미국의 지정학적 대적은 단지 구조원만이 아니었다. 바로 하나님(알라)을 두려워하고, 세계 전역에 퍼져 있는 급진주의적 이슬람 테러리즘이 구조원 다음으로 미국을 힘들게 했다. 수차례의 폭탄 테러 끝에 알-카에다는 미국의 심장 뉴욕 한복판에서 지구촌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테러를 자행했다. 뉴욕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교회를 떠났다.

(3면으로 계속)

 노동계층이 민주화 이끈다 2면	 시론 이동진 목사 3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7면
--------------------------------	----------------------------	------------------------------------

ATS와 ABHE 공인 최상의 온라인 교육 월드미션대학교 신학 / 상담학 / 음악학 / 간호학 / 유아교육 / 가정사역 / NGO사역 캠 퍼 스 온 라인 www.wmsu.edu (714) 338-1000 1500 Shatto Pl., LA, CA 9002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예술서적 / 음악 / 생애 학과 / 관광 / 교재판매 / 영성서적 / 영장기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39th St.,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linnwood Terrace, P.O. Box 1000, NJ 070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역 상담, 영성공역기, 생가목회 수련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Fax. 714-330-6080 bibv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644
---	---	--	---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교회연합, 목사위임, 임직, 취임예배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자극히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하심에 따라 동문교회와 연약교회가 동문교회로 연합하고, 고귀남 목사의 목사 위임예배와 인수집사 임직 및 권사 취임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되신 동문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전파를 통하여 회개와 영혼구원의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나가기에 하실 줄 믿고 정성을 다하여 드릴 예배에 정중히 초대하오니 부디 오셔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위임: **고귀남 목사**
 집사인수: **오정섭, 스킷주, 이진우, 최대영, 신정식**
 권사취임: **이해숙, 안에스터, 민옥경**

일시: 2019년 11월 10일 (주일) 오후 3: 30
 장소: **동문교회**
 1901 Beverly Blvd., L.A., CA 90057
 (213) 674 7447, (213) 820 0003

동문교회
 고귀남 목사의 교우 일동

● 발행인 칼럼 ●

아시나요?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나는 영화 평론가였다.” “나는 한강을 수영으로 건넜다.” “나는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나는 머리에 금이 간 적이 있다.” “나는 호주와 실제의 생년월일이 틀리다.” “나는 음악을 듣다가 운다(가끔).” “나는 어렸을 적에 방송국에 고정출연하였다.” “나는 한때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우람아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나를 비롯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어리둥절했다. 지난 주 장로교택자 부부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이다. 일곱 명의 장로교택자 부부와 우리 부부가 참여했던 1박2일 세미나에서 자기의 이야기 네 가지를 무기명(無記名)으로 적어 내면 사회자가 한사람씩 그 내용을 읽어줄 때 그 사람이 누구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맞히라는 게임이었다. 나는 장로교택자 부부를 대부분 20년 가까이 알아왔다. 또 그들은 서로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오며 20년 이상을 지내 온 이들이었다. 그런데 너무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 사람을 알아내는데 적잖이 시간이 걸렸고 끝까지 모르겠는 사람도 몇 있었다. 이야기 가운데 나쁜 짓을 하여서 경찰에 체포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학생데모가 한창일 때 데모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MT 다녀오다가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연행된 사연(事緣) 등이 후에 따르기도 하였다.

미국 생활을 얼마나 하셨는가. 그 미국생활의 연수(年數)와 미국을 잘 아는 것은 비례(比例)하지는 않지만 미국을 잘 알면 알수록 그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분명하다. 6년 전 한국 생활을 다시 접고 미국으로 재차 오게 되었다. 그 때 나와 아내의 미국 운전면허증이 익스피어(expire) 되었다. 매일 운전을 하여야 하는데 국제운전면허증만도 계속 지내기가 불편했다. 뉴욕에서 다시 시험 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난감(難堪)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에서는 운전면허가 익스피어(expire) 된지 2년을 넘지 않으면 시력 검사 등 간단한 과정을 거쳐 쉽게 재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법규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괜찮았고 아내는 살짝 그 기간이 넘었다. 나는 갱신된 면허증으로 휘파람 불며 여기저기 운전하며 다니는 동안 처녀 때부터 운전면허증을 갖고 오래 운전해왔던 아내는 악명(?) 높은 뉴욕면허를 처음부터 따기 위한 준비와 연습에 여념이 없었다.

“나는 음악을 듣다가 운다(가끔)”은 내가 적어낸 것이다. 내가 우는 정확한 이유를 나도 모른다. 굳이 그 까닭을 헤아려본다면 그 음악을 만든 사람, 그 곡을 부르는 사람의 심정에 깊이 공감하기에 눈물이 흐르는 것은 아닐까. 특히 많이 많이 들었던 “가시나무”는 언젠가 또 울며 들을 것 같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쉼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쉼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쉼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찢려 날아가고” 나는 다만 알고 그 당신을 너무나 몰랐기에 그를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당신은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기도 하였고 하나님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보니 나는 가까웠던 사람들도 잘 몰랐고 하나님은 더더욱 잘 모르고 있었다. 아직도 미국을 잘 모르는 것은 덧붙이기이다. 누구를 안다는 것, 무엇을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 나의 가까운 사람, 배우자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모르는 그의 아픔과 외로움을 오늘도 무심히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동안 가깝지 않았기에 이제는 더 가까이 다가가 알아주어야 할 그를 오히려 여전히 외면하고도 새해를 맞겠다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곤한데도 여전히 공허한 자신감으로 충만한 것은 아닐까.

노동계층이 민주화 이끈다!

워싱턴포스트, 오슬로 연구진의 노동계층과 민주화 성공 관련연구기고 보도

미국과 유럽 여러 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교육 수준이 낮은 일부 노동자 계층의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의 백래시(반발) 세력이 됐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 같은 스테레오타입에 따르면, 백래시 세력은 경제적 세계화와 이민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 정치인 및 정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 사람들이다. 정치 분석가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을 이와 반대로 민주주의적 가치와 원칙을 수호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산업 노동자들이 정말로 반민주주의 세력일까? 최근 연구에서 우리는 세계

150개 국 시민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 노동자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오히려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도시 거주 중산층보다 오히려 더 중요했다. 공장 노동자들이 독재 정권에 대규모로 저항하기 시작하면, 뒤이어 민주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았다(We checked 100 years of protests in 150 countries. Here's what we learned about the working class and democracy: The success of mass protests depends on who is doing the protesting).

워싱턴포스트는 오슬로 평화연구/오슬로대학 연구진들의 '노동계층과 민주화 성공 관련 연구'에 대한 기고를 게재했다.

우, 특히 도시화된 사회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산업 노동자들은 특히 노조와 국제노조 및 사회민주당 네트워크를 활용해 독재정권에 강력한 도전을 안겼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특정 유럽 국가와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보통선거권과 다당 경쟁 선거 도입에 있어 노조가 기여한 점을 강조한 기존 주요 연구들에 동의한다.

이런 사례의 경험들은 전형적이지 못할 수 있다. 우리 연구는 시위 참여자의 사회적 구성이 민주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계 각국의 사례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연구이다. 우리는 1900년부터 2006년까지 전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주요 저항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이 운동에 산업 노동자, 도시 중산층, 농민, 민족 집단, 종교 집단 등 누가 참여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가장 확고한 발견은 산업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저항운동이 다른 어떤 종류의 운동보다도 민주화를 가져오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점이다. 도시 중산층의 저항운동이 민주화와 연결돼 있다는 근거도 있지만, 산업 노동자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근거 보다는 약하다.



민주화 운동 성공 여부는 누가 저항에 참여하는가에 달려 있어 도시중산층 주도, 가능성 훨씬 높고 산업노동자들 경우 더 높아

근대사에서 각국의 시민들은 정치적 자유를 얻기 위해 대규모 저항을 조직했다. 때로는 그 시도가 성공을 거둔다. 현재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정치적 자유를 얻기 위한 대규모 조직운동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20세기 초반의 여성 참정권 운동, 30년 전 동유럽의 반공산주의 운동,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반정권 시위인 “아랍의 봄”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아랍의 봄 이후 갈라진 각국의 운명이 말해주는 것처럼 대중운동이 언제나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이란의 사례처럼, 현재의 독재정권을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왜 어

떤 운동은 민주주의를 가져오고 어떤 운동은 실패해버리는 것일까? 우리 연구는 1900년부터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일어난 주요 반정권 저항운동을 비교해서, 민주화 운동의 성공 여부는 누가 저항에 참여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위자들의 사회적 배경에 성공여부가 달려있었다. 시위자들이 중산층 시민인 경우일까, 아니면 공장 노동자, 공무원, 농민들인 경우일까?

저항 운동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린다. 예를 들어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일어난 아랍

의 봄 운동을 살펴보자. 2015년 노벨 평화상은 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Tunisian National Dialogue Quartet)에 돌아갔다. 튀니지의 평화로운 민주화 이행 과정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국민4자대화기구는 노조를 포함,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연대였다. 반면 이집트에서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은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전문직이라는 훨씬 작은 사회적 기반을 갖고 있었다.

20세기에는 오로지 농민들로만 이루어진 저항운동도 있었다. 우리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저항운동은 민주적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집단에게 정권을 교체할 힘이나 민주주의를 실시할 동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산업 노동자들이 끼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도시 중산층이 주도하면 민주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산업 노동자들이 경우는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두 집단이 힘을 합하는 경

최근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들의 부상에 대한 토론에서 노동자 계층에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연구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에서 산업 노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674-7982(대표) (323)665-0009(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 (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0, July 6, and Nov 30.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 (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자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라고 한다. 그것도 수년째 순위가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매일 평균 38명이 목숨을 끊는다고 하니 굉장하다 싶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할 수만 있다면 두 팔 걷어붙이고 막고 싶다. 얼마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것일까? 사람은 과연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지구력이 얼마나 되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

었다는 보도를 대할 때마다 안타까움과 더불어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싶다. 그런데 자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진행형으로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삶의 치열한 경쟁에 더욱 떠밀리고 있다. 그래서 경쟁에서

패한 자들이 부지기수로 양산 된다. 세상은 항상 1등을 요구한다. 그래서 2등은 간발의 차이이지만 현실에서는 너무 겹이 크다. 2등은 1등으로 올라서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고로 이 시대는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 가운데는 자신의 현실을 비판하여 스스로 잘못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거스틴은 그의 책 "신의 도성"에서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 논하고 있다. 즉 로마의 테키우스 가문의 사람들은 로마군대를 구출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피로 신들의 노여움을 풀도록 하기 위해 목숨을 신들에게 바치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가!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 사울왕이 자살했고(삼상31:1-6), 아히도벨(삼하17:23), 그리고 가룟유다(마27:3-5)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자신의 뜻이 성취되지 못했다고, 또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여겨 스스로 목숨을 끊

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 못 하는 존재임을 아셨다.

고로 잘못을 범해도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약속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셨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유행처럼 자살의 행위를 쫓고 있다. 하도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으니 어느 목사님은 자살하는 자가 모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그러나 교회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자살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화가 고흐가 너무 힘들어 자살하였다. 그러나 조금만 견디었다면 그는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자살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의 그림은 평론가로부터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거룩한 소명을 거절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누구도 하나님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자의 수가 수억이라고 한다. 정자가 난자를 기막힌 확률로 만나 우리가 태어났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역사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 소명의 경중을 세상은 논하고 판단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나사로를 보라. 그는 인간 중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였다. 온 몸에 피부병(피부암)으로 진물을 흘려야 했으므로 개들이 그 진물을 핥을 정도였다. 그런 상황이라면 썩는 냄새로 진동했을 것이다. 거기다 너무 가난하여 부자의 때문에 기대어 부자가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야 하는 비참한 삶이었다. 그는 병을 고쳐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혀를 차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비아냥거렸으나 그는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었다. 그리고 죽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

었다. 그는 진정 성공한 인생이었다. 그럼에도 비애는 세상에 있는 성공하였는데 죽고 보니 실패한 인생이었다. 죽자마자 음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진정한 성공은 이 세상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가 천국에 입성하느냐? 탈락하느냐로 구분된다. 그 때까지 그 누구도 성공과 실패를 논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 조금만 참아요. 자살! 멈추세요. 우리에게는 진정 찬란한 내일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이웃은 많답니다. 셀 수 없이!! 더 나아가 당신의 자살은 남아있는 부모 형제자매 친구를 평생 슬픔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죽도록 힘든 일을 만난다 해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견디세요. 오늘의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 자살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김귀안 목사 (뉴저지 세빛교회)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뉘 시를 갔다 온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오늘 유난히 행복해 보이네요. 고기 많이 잡았나보죠' 문자 남편이 '아니 몇 마리 못 잡았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좋아요?' 라고 문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옛 사람이 큰 고기를 잡았다가 놓쳤거든.'

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의 인생 120년을 마무리 하면서, 그는 누가 진정한 행복한 자인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외부 환경이나 조건으로 하면 그들은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행복한 이유를 '여호와와의 구원을 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질문법을 통해 "구원을 얻은 것 그 자체가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이시기에 '너희는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친구 중에 농아인 목사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 영락농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용의 목사는입니다.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세가 이

한라에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아니고, 더 이상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었고, 전쟁을 치루며 정복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

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행복자라고 외친 것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한 "행복한"의 단어 "아쉬레"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어진 구원을 통한 행복은 순간 사라지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진정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말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뉘 시를 갔다 온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오늘 유난히 행복해 보이네요. 고기 많이 잡았나보죠' 문자 남편이 '아니 몇 마리 못 잡았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좋아요?' 라고 문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옛 사람이 큰 고기를 잡았다가 놓쳤거든.'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뉘 시를 갔다 온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오늘 유난히 행복해 보이네요. 고기 많이 잡았나보죠' 문자 남편이 '아니 몇 마리 못 잡았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좋아요?' 라고 문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옛 사람이 큰 고기를 잡았다가 놓쳤거든.'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뉘 시를 갔다 온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오늘 유난히 행복해 보이네요. 고기 많이 잡았나보죠' 문자 남편이 '아니 몇 마리 못 잡았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좋아요?' 라고 문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옛 사람이 큰 고기를 잡았다가 놓쳤거든.'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뉘 시를 갔다 온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오늘 유난히 행복해 보이네요. 고기 많이 잡았나보죠' 문자 남편이 '아니 몇 마리 못 잡았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좋아요?' 라고 문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옛 사람이 큰 고기를 잡았다가 놓쳤거든.'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뉘 시를 갔다 온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오늘 유난히 행복해 보이네요. 고기 많이 잡았나보죠' 문자 남편이 '아니 몇 마리 못 잡았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좋아요?' 라고 문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옛 사람이 큰 고기를 잡았다가 놓쳤거든.'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뉘 시를 갔다 온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오늘 유난히 행복해 보이네요. 고기 많이 잡았나보죠' 문자 남편이 '아니 몇 마리 못 잡았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좋아요?' 라고 문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옛 사람이 큰 고기를 잡았다가 놓쳤거든.'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명기 33장 29절

왜냐면 조건이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 기준은 언제나 변할 수 있기에 외부 조건을 통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한 인생의 성공도, 건강도, 물질도 언제까지나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한 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건강과 성공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환경 조건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그 조건이 무너지면 행복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시 73:28).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즉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합 3:17-18)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라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합 3:17-18)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HAPPINESS IS NOWHERE를 문장으로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혀지나요? HAPPINESS IS NOWHERE!(행복은 어디에도 없다)로 읽었나요? 아니면 HAPPINESS IS NOWHERE!(행복은 여기에 있다)로 읽었나요? 과거 40년의 광야 생활에 지치고, 불확실한 미래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행복을 본 적이 있습니까? 행복은 어디에도 없어! 라고 외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Happiness is now here!" 행복은 여기에 있다.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 참다운 행복은 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위에 행복을 나누며 사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록 세상 기준으로는 가진 것이 적고, 건강치 못하고, 학식이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 기도이자 유언

1.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신33:29).

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설교 중간 중간에 성도들이 박수를 치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멘'이 있었습니다. 말로 아멘하지 못하니 박수로서 '아멘'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들은 온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 후 식사와 친교 시간에도 교회 전체가 아주 고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아주 밝고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을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 천국에 가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 그때는 마음껏 소리 내어 찬양하며 영광 돌릴 날이 있리라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도우려하시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기도로 전진하는 탈동성애자들의 모임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다!

미국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적인 회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10월 30일), 미국 국회의사당 로툰다(rotunda)에서 이전에 동성애자였거나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였던 사람들이 모여 뜨거운 기도모임을 가지며, 미국 역사상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탈동성애자들(이전 게이, 레즈비언이었던 사람들과 탈성전환자(이전에 트랜스젠더였던 사람)들은 지난 오바마 정부를 통해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고, 국가적으로 동성애, 트랜스젠더 라이프스타일을 일반인들까지 따라하도록 선동할 뿐 아니라 성경이 확실하게 죄라고 말한 '동성애, 성전환(트랜스젠더)의 성향, 성적인 죄들을 어린 아이들 교육에까지 미 전역에 퍼뜨리며 "죄를 선"으로 둔갑시킨 죄와 어린이들에게 성적 죄를 짓도록 문을 곳곳에 열어 준 사악한 죄에 대하여, 지난 국가를 대신하여 회개하고 혼돈된 영혼들의 치유를 함께 기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지지를 얻어 국회의사당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이전에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였으며 주로 자신을 시도했었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자유를 찾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올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 biệt히 결혼의 정의를 성경이 정하신대로 회복시키는 정책에 앞장선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의 지지에 더 힘입어, 이들은 할로윈 전야인 지난 수요일 밤에 모여 이전의 국가가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고 수많은 동성애의 성적 취향 죄들을 지울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락한 국가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런 "죄를 선이라고" 주장하는 혼돈된 사람들을 대신하여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또한 매우 중요한 기도와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요청을 가지고 이날 국회의사당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몇 년째 민주당 낸시 펠로시와 민주당 100%가 적극적으로 밀어 부치며 법으로 규정지어려고 하는 "Equality Act-평등법"과 "Therapeutic Fraud Prevention Act-치료사기 방지법"이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고 시민들도 이 두 가지 법안에 절대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자 온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위의 두 가지 법안들은 이름만 화려하지 가정, 사회, 국가뿐 아니라 정작 동성애자들을 돕겠다고 만들어지

는 이 두 가지 법안들이 동성애자들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 Tvnext 홈페이지에 Equality Act(평등법)과 "치료사기 방지법-캘리포니아와 대도시들이 밀고 있는 신앙의 자유통제법(기도 함)에 대해 적혀있습니다.

탈동성애자들의 진실을 비꼬고 왜곡한 주류 언론 미디어들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행사에 대하여 NBC는 탈동성애 그룹이 "LG-BTQ 권리에 반대하는 로비"를 위해 DC에 왔다고 왜곡되게 선전하는 헤드라인과 함께 기사를 크게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모임의 목적은 NBC의 거짓뉴스와는 전혀 다른 의도와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때 동성애자

오랜 세월 동안 "남자"로 착각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그녀의 진정한 정체성으로 회복된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거짓된 정체성을 믿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실수하셨다 라는 거짓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어야 했다고 믿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을 속이는 사람들의 눈에서 거짓으로 가려진 비늘들을 계속 떨어뜨려 버려주시고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이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주님이 그런 혼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그 철저한 속임수에서 그들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간



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성애자로 돌아온 이들은 LGBT 이데올로기의 거짓말을 거부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면서 치유와 진정한 자유를 찾는 간증을 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들이 국회에서 올린 기도문을 몇 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만의 죄, 성적 일탈의 죄, 우리를 오늘날의 곳으로 이끈 죄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우리는 동성애의 죄에 대해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서 동성애 라이프스타일, 동성애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동성애를 허용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어둠을 밀어내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오직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남자를 만들고 아내를 찾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에게 진리가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속임수의 커튼을 제거하기를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라고 한사람씩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탈동성애자들은 기도 속에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포로로 잡혀 구속된 자들이 하루속히 주님을 만나 자유를 찾으려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대각성이 속히 다시 생겨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국회의사당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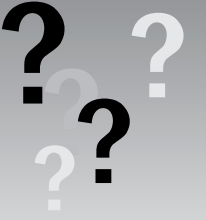
생명 존엄성 챔피언과 종교적 자유의 수호자들인 미국 하원의원 Doug LaMalfa(R-CA)와 Louie Gohmert(R-TX)의 인도로 역사적인 건물을 둘러본 후 1시간 동안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강렬한 기도와 찬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탈동성애자들처럼 정체성의 혼돈과 속임수에 넘어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인터넷 영화와 동영상을 통해 성적 충동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크리스천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청년의 정욕과 성적 유혹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실패하고 맙니다. 만약에 내가 성범죄의 죄에 빠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문 집사

A: 솔직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하는 "메디슨카운티의 다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아이오와 주에 사는 중년의 유부녀가 우연히 그 마을에 들른 매력적인 사진작가인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사랑의 감정에 빠지는 것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가 중년의 사랑을 그리면서 아주 멋있게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그것은 엄연히 혼외정사를 불륜입니다. 오늘날 TV드라마나 영화들의 대부분이 혼외 로맨스를 마치 멋있는 사랑처럼 미화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삶속에는 인터넷이나 이성을 통한 성적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적 유혹은 잠시 달콤할 뿐 그것 때문에 치르는 대가는 혹독합니다. 성범죄는 신앙과 상극이요 성령충만과 상극입니다. 성범죄에 빠지면 반드시 영적침체가 찾아옵니다.

성범죄에 빠지면 첫째, 먼저 양심과 영혼이 파괴됩니다. 크리스천이 성적 범죄에 빠지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심히 슬퍼하시고 근심합니다. 마음에 놀리는 죄책감이 찾아오고 마음에 평화가 사라지고 맙니다. 예배에 참석하지만 예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가 파괴됩니다. 현재 알려진 무서운 성병만도 종류가 60개가 넘는데 미국에서는 매일 4만명에 가까운 미국인이 문란한 성행

성범죄에 빠지면 반드시 영적침체 온다

활을 통해 성병 바이러스에 접촉한다고 합니다. 이 추세로 나가면 미국인 4명중에 한 명이 성병환자가 됩니다. 미국 외과대학병원의 통계에 의하면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남편을 둔 부인들은 Cervical Cancer 즉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5-11배 높다고 합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수의 말에 따르면 바람둥이의 남편을 둔 여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암세포를 배달해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과 사회가 파괴됩니다. 서울의 통계로 보면 하루 결혼이 223건인데 이혼신고자 하루 71건이라고 합니다. 서울 이혼율이 30%를 넘는다고 하는데 주된 이혼의 사유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적 방종이 가정파괴의 주범입니다. 미국은 10대 소녀들이 매년 100만명이 임신 하고 그 중에 40만 정도가 낙태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20만명 정도가 아버지 없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중 대부분이 정부의 보조를 받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 성장한다고 합니다. 마약, 매춘, 살인, 강도 등의 범죄로 감옥에 수감되는 이들의 절반 이상이 이런 아버지 없이 자라난 성장배경을 가집니다. 미국에서는 1,200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 보지도 못하고 낙태수술로 사라지는데 이중 대부분이 펫먹지 못한 성생활의 결과로 생긴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이 삼가고 조심해야 할 것은 성 문제입니다. 불은 난로라는 장소에 제한되어 있을 때는 따뜻하게 해주지만 그 불이 난로 밖으로 쏟아져 나와 사방으로 휘뿜 금방 파괴의 도구로 돌변합니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개혁

개혁이란 기준이 제도 또는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하는 행위이다. 성공한 개혁을 위하여 반드시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사항이 지켜져야 한다. 불필요하거나 방해가 되는 요소를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새로운 것을 수용하려는 의지이다. 역사의 흐름 가운데 '전환의 시대'가 수없이 등장하였다. 매번 개혁적 마인드를 지닌 자들의 주장이 거부되었거나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에 따라 과거를 지향하는 고집스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거나,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개혁' 하면 가장 먼저 16세기 종교개혁이 떠오를 것이다.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전환의 시대'에 개혁을 외쳤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는 칼로 과일을 자르듯 단번에 이뤄지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개혁이란 외부로부터의 강한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혁명적인 사상이나 상대를 비판하는 우렁찬 목소리도 아니다. 초지일관 개혁을 주도하는 힘은 '자기성찰', 즉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안목에 있다.

에라스무스

데시 데이위스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536)는 교회의 개혁을 위해 헌신했던 성직자였다. 그는 남다른 아픔을 지녔던 자였다. 그의 부친은 당대 인문주의교육을 받은 자였고 모친은 외과의사의 딸이지만 약혼관계의 사생아로 태어난 것이다. 이런 신분을 알리지 않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름을 변경한 것이다. 그의 원래 이름은 '헤라스무스'였지만 1503년에 '에라스무스'로 고쳤다. 또한 1506년경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란 의미를 지닌 '데시데리우스'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교회의 개혁을 논하면서 에라스무스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다. 그는 중세교회의 개혁을 간절히 원했던 인물이었다. 에라스무스는 1583년 11월에 태어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보다 17살이 많았다. 그러므로 그는 루터를 포함한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사상과 활동 내용, 그리고 로마교회의 반응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교회의 중요한 '전환의 시대'에 활동했던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과 힘을 합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흥미로운 것은 에라스무스가 한때

루터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었다는 것이다. 교회가 1517년 95개 조항을 내세운 루터에게 강요하였을 때, 그는 교회 고위직자에게 루터를 옹호하는 편지를 보냈다. 무턱대고 루터를 지지하려거나 그의 편에서 교회를 비판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도리어 루터에 대한 심한 편견을 가진 채 이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교회의 태도를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새로운 견해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를 내릴 것을 바라며 기대했던 것이다.

소속의 중요성

에라스무스의 태도에 대해 교회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개혁자들

을 시작으로, 두 사람 사이에 신학논쟁이 있었다.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글에 반박하기 위해 '노예의지론'을 새롭게 저술한 것이다. 자신의 신학적 견해가 루터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사람들은 에라스무스에게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는 요구가 있었다. 결국 1526년 그는 루터의 개혁의 흐름을 공격하는 글을 썼다. 이로써 자신은 종교개혁자들과 달리 구교에 소속되었음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알린 것이다.

객관적 평가

현재 에라스무스에 대한 평가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구교는 교회를 거부하고 분리시키려고 한 자로, 신교는 개혁적 사상을 감추고 공개적으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그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가 후대교회에 남겨준 위대한 영적유산은 묵과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르네상스

에라스무스의 사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다름 아닌 중세말 르네상스이다. 그는 인문주의자였다.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꽃을 피웠다. 고전연구를 통해 그리스와 로마의 정신을 본받으려는 세속적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후에 북부 유럽으로 옮겨지면서 르네상스는 성경과 초대교회의 정신으로의 복귀를 목격하는 강한 종교적 운동으로 변하였다.

화란에서 태어난 에라스무스는 자연히 북유럽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가 어려서 공동생활

과감히 배척하고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새롭게 될 것을 요구하였다. 에라스무스가 토마스 아 켈피스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에 분명하다.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는 북부유럽의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만큼 이탈리아 르네상스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1492년 사제로 서품을 받고 교구장의 비서로 일하게 되었다. 교황청과의 관계를 위해 라틴어 문체가 뛰어난 그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라틴어와 라틴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력을 쌓아온 결과였다.

그 후 교구장이 허락하여 에라스무스는 파리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을 만나 교제하면서 고대 세속 문학에 심취하게 되었다. 그 후 1499년에 영국으로 가서 인문주의자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토마스 모어(Sir Thomas More, 1478-1535)가 있었다. 헬라어에 능통하였으며 영국에 있는 동안 주로 그의 집에 거거하였다.

또한 존 콜렛(John Colet, 1466-1519)은 성경해석학에 새로운 장을 연 인물이었다. 그는 교리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중세교회와 달리 본문과 저자에 강조점을 두었다.

에라스무스는 콜렛을 통해서 성경신학이 지닌 역동성을 경험하게 되었다. 나아가서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콜렛의 무능력을 통해 성경언어에 대한 중요성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 결과 헬라어연구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1500년에 출판된 후 계속 개정판을 낸 '금언집'을 통해 헬라어 실력이 늘어났는데, 이 책에는 헬라어자들의 금언을 발췌함으로써 고전인용구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지속적으로 에라스무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확신이 있었다.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1516년 그 유명한 '헬라어 신약성경'이 출판되었다. 19세기까지도 학계에서 공인된 권위를 인정받은 작품이다. 그러나 이 책이 출판된 후부터 교회가 그를 노골적으로 비난하였다. 그 후 그는 헬라어 신약성경을 번화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며 조용히 교회의 개혁을 이끌었다.

'우신예찬'

'우신예찬'은 에라스무스의 개혁사상이 담겨져 있는 훌륭한 작품이다. 그는 국가 또는 교회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개혁될 때, 전체 사회가 개혁될 것으로 믿었다.

(12면으로 계속)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 (49)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의 움직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교회는 에라스무스가 요구하는 관용적 태도를 수용할 여지가 없었다. 아무리 작은

로 부인한 자료 간주한다. 결국 그는 역사의 광야에 외톨이로 서 있는 모습으로 남아있다.

사실 개신교가 개혁에 대한 의지를

형제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받은 기초교육이 평생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공동생활형제단은 북 르네상스의 열매 중 하나로서, '새로운

개혁과 구교 사이에 선 에라스무스, 역사의 광야에 남아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교회개혁 위해 최선 다해

것이라도 개혁의 불씨를 끄는 것을 급선무로 여겼기 때문이다. 교회의 방침에 고개를 숙여 순종하지 않고 바른 소리를 내뱉는 에라스무스를 향해 경계하는 태도를 늦출 수 없었다.

그렇다면 16세기 개혁자들이 그를 '동지'로 여겼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교회의 개혁을 갈망하던 에라스무스는 루터의 등장을 환영했다. 그러나 새로 등장한 개혁운동이 결과적으로 교회의 분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루터와 선을 긋기 시작하였다. 그 중심에는, 현재 자신이 소속한 교회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루터가 1520년에 저술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반박하는 '자유지론'

보이지 않았던 구교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던 16세기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에라스무스는 그다지 현명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다른 모든 사람들 처럼 자신 앞에 놓인 갈림길에서 오직 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신교의 입장에서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면 에라스무스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같은 걸음을 하지 않은 그가 야속해 보일 수도 있다.

에라스무스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교회의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루터를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등장하기 전에 교회의 개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에라스무스에

헌신(Devotio Moderna)'을 강조하며 경건한 삶을 우선순위로 삼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에라스무스는 자신이 신학자임을 잊지 않았으며 언제나 내면이 충실한 영적인 삶을 강조하였다.

1501년에 저술된 '기독교 군사'의 단점'에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잘 설명되어 있다. 그는 영적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할 성도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가르친다.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진리를 알면 기도가 더 분명해진다고 확신하였다. 나아가서 고전문헌도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기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피라고 권한다. 주님의 제자는 반드시 자신을 알고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공동생활형제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외적이며 형식적인 것을

Worldwide Church Directory with logos and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Galbraith, Montgomery, Bucks County, etc.

영어로 보는 성경 (42)

English Bible

이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Matthew 1:20,21

20) But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said,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home as your wife, because what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21)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NIV 1984)

WORD & IDIOM

* consider: 깊이 생각하다 * appear to A: A에게 나타나다 * be afraid to+(V) ~: ~하기를 두려워하다 * conceive: 임신하다, 잉태하다 * give birth to a son: 아들을 낳다 * be to+(V) ~: ~해야 할 것이다 * save A from B: B에서 A를 구원하다

GRAMMAR

20) But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said, 주님의 한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 <after he had considered this>에서 (this)는 요셉이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은밀하게 단절하고자 작정한 것을 가리킨다(18,19절). * <had considered>는 과거완료형으로 여기서는 주의 한 천사가 나타났던 때보다 앞선 과거의 시제이다.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home as your wife, 다윗의 아들 요셉아 두려워 말라 메리를 집에 데려 오기를 너의 아내로서 => "다윗의 아들 요셉아, 너의 아내로(서) 메리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

* <to take Mary home>는 <To+부정사>구이다. <To+부정사>는 명사적(~ 하는 것), 형용사적(~ 할), 부사적(~ 하기 위하여) 등의 기능을 갖는다. 이 문장에서는 <do not be afraid>의 목적어로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즉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준다.

because what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왜냐하면(what ~이하기 때문이다) 그녀 안에 잉태된 것(아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 왜냐하면 그녀 안에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21)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그녀는 아들에게 출생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어야 할 것이다. => 그녀는 아들을 낳을 것이며, 너는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될 것이다.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왜냐하면(he 이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 왜냐하면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에서 <are to + give>는 <Be to>용법, 즉 예정, 금지, 가능, 의무, 의도, 운명, 작정 등의 의미 중 맥락에 따라 해석을 한다. 여기서는 작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STUDY & THOUGH

■ 본래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그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졌는데 이는 그 이름이 신적인 기원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친 아버지 이심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 21절 끝 문장 즉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에서 말하는 <구원하다>라는 동사는 어떤 자연적 재난이나 위험, 정치적 억압, 또는 가난이나 질병 등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독교가 지나친 사회복음을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The origin of Jesus is not man, but God.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참 경건의 원천(약1:26-27)찬347장

본문의 참 종교란 경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인 바른 경건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26). 무엇보다도 말이 절제로 경건이 나타납니다. 말과 행실이 다를 때 스스로 속는 삶을 살아가는 외식으로 떨어집니다. 둘째, 환난 속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곧, 환난을 당하는

때 약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공휴의 사역은 참 경건에서 나온 것이지만 인간적 동정에서 출발한 것은 또 다른 타락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경건으로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자기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다. 무엇보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이 참 경건입니다(27). 경건의 사람이 됩시다.

화 차별을 금하라(약2:1-4)찬403장

참 경건은 의와 공평을 세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의는 집의 터전이나 골조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며 그 백성의 생각과 모든 생활의 뼈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것은 반드시 모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신자가 차별하지 않는 공평한 삶의 태도가 신앙생활의 기본임을 대조적 실례를 들어 설명합니

다(2-3). 외형의 아름다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불의이기 때문에 금하라고 가르칩니다(4).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르며 참된 경건의 삶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복이 임합니다. 이 경건으로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수 이웃사랑이란 무엇인가?(약2:5-9)찬133장

두 가지 계명 곧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요약된 율법은 참 이웃사랑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웃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심령의 가난함에서 나옵니다(5-6). 외모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일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겸손한 마음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만이 이 사랑을 이룹니다. 둘째, 최고의 법을 지키는 일입니다(8). 율

법의 613조항이 모두 이웃사랑으로 요약됨은 그 뿌리가 의와 인과 신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 나오기 때문입니다(마23:23).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사랑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9). 이웃을 차별하는 마음은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목 자유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약2:10-11)찬411장

여기 야고보가 말하는 자유의 율법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의 참 자유는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복음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첫째, 누구든지 지켜야 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모두 지켜야 합니다(10-11). 이 율법의 모든 조항이 요구하는 의인신을 이뤄야만합니다. 시간과 공간

에 따라 그 요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항상 지켜야 합니다. 누구든지, 모두, 항상 지켜야 하는 그 요구를 충족시킬 자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자유에 이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이며 구원의 생활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성령 안에서 누립니다.

금 공평이 심판을 이긴다(약2:12-13)찬197장

자유와 공평이란 복음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자유하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의식으로 말하고 행합니다(12). 둘째, 적극적인 긍휼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13).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긍휼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창조나 재창조에 어두움을 품으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창1:2). 우리는 그 긍휼을

이웃에게 베풀 자라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긍휼이 온갖 문제를 이깁니다(13). 하나님의 정죄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긍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긍휼로만 이깁니다. 우리는 그 긍휼을 생활에 나타내려할 때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토 행함없는 믿음이란?(약2:14-17)찬499장

바울의 이신득의의 가르침은 야고보에 와서 더 견고해졌습니다. 성경은 언제 행함없는 믿음을 요구하고 행함없는 믿음이나 믿음없는 행함을 경계합니다. 행함없는 믿음이란? 첫째, 현실에 참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14). 믿음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 역시 반드시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둘째, 외식으로 떨어집니다

(15-16). 말로는 온갖 것을 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은 외식의 늪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힘쓰는 것이 신자의 할 일입니다. 셋째, 죽은 것입니다(17). 생명이 없는 믿음은 생명을 낳을 수 없듯이 참 믿음은 반드시 참된 행함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행위를 놓고 평가하는 것은 해결의 길이 아닙니다. 그 뿌리인 믿음의 진위를 가려야 합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_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포드 예비부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잠언서 지혜만으론 부족하다!

CT, 십자가 안에서 지혜의 유익 강조

크리스치니티투데이 편집장 마크 켈리는 항상 짙은 사색을 통해 묵직한 메시지를 전해 준다. 그는 재정적 부요함이나 건강의 축복 등 성공을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변영신학 설교자들

들이 선포하는 '지혜'는 불충분하다고 잘라 말한다. 교회공동체는 바로 '십자가의 지혜'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Pep Talks For Successful Living").

최근 나보다 나이가 많은 복음주의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다. 나이 들고 폭력적인 아버지와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좋게 봐서 시련이었다. 그런 그녀가 최근 돌과 구를 찾았다고 말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처한 상황에 대해 징징거리지 말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상황을 기회 삼아서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요. 그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이 말을 듣자 문득 궁금해졌다. '오스틴 목사가 설교한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휴스턴의 목사인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지금까지 들은 말은 주로 신랄한 비판이었다. 그래서 이참에 그의 설교를 몇 개 찾아들었다.

고장 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는 말이 있는데, 오스틴 목사는 그보다는 자주 맞는 말을 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소위 '변영복음

설교자'라는 몇몇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굳건한 부부관계나 자녀양육, 고통의 문제에 관한 지혜로운 조언을 자주 들려주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역경을 만났을 때 침착함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말도 자주 했다.

물론 신앙과 금전적 번영을 넘나들며 연계할 때는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가끔 그랬다. 대개는 성경적 지혜와 심리학적 지혜를 버무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중에게 제시했다. 아니면, 역사학자 케이트 보울러가

그러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주류 복음주의 교회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살펴보면 그리 문제가 많아보이지는 않는다. 많은 교회들의 웹사이트를 둘러보면 관계개선, 자녀양육, 직장에서의 신앙생활, 일반적인 의미의 성공하는 삶에 대한 비슷비슷한 설교시리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용적이고 괜찮은 조언들이 많은데, 대개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잠언이 자주 등장한다.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일상에 대한 상식적

문제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들과 선생들이 진리를 전부 다 알려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전부를 이해할 수 없다.

잠시 들르는 휴게소가 아니다. 고통 역시 목적지로 가기 위한 수단이다. 역경도 인격을 함양하고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잠언의 지혜에 치우친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만 진실이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신학이며,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견디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다.

반면 십자가의 신학은 고통의 이면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죄 용서는 십자가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십자가의 지혜"(고전1-2장)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평범한 지혜를 넘어서는 이토록 엄청난 메시지, 곧 사람들에게 하여금 확고부동한 실재에 두 발을 디디게 해주고, 그리스도를 목격 그 자체로 제시하며, 우리를 불러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곳을 보여주는 메시지(요12장)를 지닌 기독교 지도자들이 왜, 그저 약간 도움이 될 뿐인 지혜를 나누는 일에 그토록 많은 시간을 쓰고 공을 들이는 걸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어리석음... 변영신학 설교자들의 불충분한 지혜 아닌 '십자가 지혜'

"축복: 미국 번영복음의 역사 (Blessed: A History of the American Prosperity Gospel)"에 쓴 대로, 번영복음 설교자들은 절망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간 조건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했다.

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니 말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중 대다수 조언들은 많이 팔리는 심리학 서적이거나 자기계발 강연,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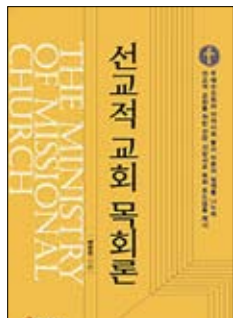
를 훌륭하게 기를 수 있거나 사업에서 성공하고 고통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 있는 철학적 요소 한 손가락과 저기 있는 심리학적 요소 한 손가락만 더하면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 인생을 구축할 수 있다.

그들이 자주 인용하는 잠언은 전체 지혜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지혜는 욕기와 전도서, 골고다 언덕의 예수에 있다. 지혜의 다른 부분, 곧 더 깊은 지혜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에 중심을 둔다.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길에

책 소개

"선교적 교회 목회론"

저자 배현찬 목사



메릴랜드 주 예수교회 담임 배현찬 목사가 '주 예수교회의 지역사회 봉사 이론과 실재를 나누며 선교적 교회를 위한 전략 지침서로 목회 로드맵을 제시'한 저서 "선교적 교회 목회론"(The Ministry of Missional Church)을 최근 콤팩트판에서 출간했다.

배현찬 목사는 "사회선교는 이렇게"(Social Mission for

Love and Justice)라는 저서를 출간 후 '사랑과 정의를 위한 사회봉사'를 비전으로 주 예수교회를 설립하고 20년을 맞이 이 책에 목회리더십을 추가 보완해 개정판을 새롭게 내놓게 됐다고 설명하며, 특별히 목회론적 측면에서 이론과 사례들을 추가했다고 발간사에서 밝혔다.

책은 발간사와 추천사, 축하

메시지, 권두언, 들어가는 말 이후 본론으로 9부와 나가는 말, 부록 공동체 나눔으로 돼 있다. 책은 1부 다인종 사회와 디아스포라(1장 해외한민 이민사회의 3대 수난사건, 타인종에 대

한 편견, 변화하는 다인종 사회와 더불어, 미주한민 이민사회와 다인종 사회, 한·흑관계에서 본 다인종 사회와 교회), 2부 사랑과 정의를 위한 사회 선교(사랑의 목표와 정의의 방법으로, 킨 목사의 인권운동을 통한 역사적 교훈, 사회선교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 3부 인종 화합을 위하여(다문화 음악축제, 한국

음식 문화축제), 4부 노숙자를 위하여(지역 홈리스사역기과 함께, 먼로 공원급식), 5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주택보수, 도시생활 개선, 산골 빈민주

선교적교회 전략지침서로 목회로드맵 제시

리더십 응용 실제), 9부 목회 리더십의 실제(건축의 발자취를 따라,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신학생을 양성하며, 안식일을 맞아, 대외봉사를 통하여)로 쓰여졌다.

또 각 부 마지막에 실은 사잇글 중에는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김성국 목사)에 투고했던 "샬롯츠빌 폭동사태를 보면서"와 "다음세대와 더불어 사는 사회선교" 등의 글도 보인다.

또 커뮤니티 섬김에 큰 희망을 준 주 예수교회가 PCUSA교단 내 한인교회 최초로 유니온

신학교 사회봉사상 수상을 축하하는 학장 Dr. Kenneth J. McFayden 축하메시지를 실었다.

또한 북미에서 선교적 교회의 이론을 정립하고 선교적 교회운동을 촉진하고 있는 대럴 구더(Darrell L. Guder, 프린스턴신학교 명예교수) 교수가 발표한 '선교적 교회: 도전과 기회'를 권두언에 실었다.

추천사는 한국일 장신대원 선교학 교수, 최영근 서울신대원 선교학 교수, 이학준 풀러신학교 기독교윤리학 교수, 정종훈 연세대학교사회윤리학 교수, 김세광 서울장신대 신학대학원장 등이 썼다.

총 487페이지. ▲연락처: hyunchanbae@hotmail.com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34년 전통의 복음주의적 초교파 교육기관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2. 직장이나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Midwest University 학위과정

국제항공대학(원) / 경영대학(원) /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 상담대학원 / 교육대학(원)
 음악, 문화예술대학원 / 신학대학(원)

부설: MIRI - Midwest 국제연구소, 국제비즈니스창업센터
 GLI - 글로벌리더십연구소, 국가미래전략연구소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